

‘마을개황’ 조사의 검토

강 정 식 *

목 차

- I. 머리말
- II. 지역 선정 이유
- III. 조사 항목 검토
- IV. 조사 내용 검토
- V. 맺음말

I. 머리말

1994년 현재까지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에서 실시해 온 학술조사에서 방언, 신앙, 설화, 민요 등의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해당 마을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을개황’ 또는 ‘사회배경’이라는 항목으로 독립해서 실시해 왔다. 이는 조사지역으로 정한 마을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인 셈이다. 이렇게 조사된 자료는 방언, 민요, 설화, 신앙을 조사하고 이해하는 데 하나의 보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소홀히 다룰 수 없다. 그간의 조사에서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마을개황’이든 ‘사회배경’이든 필요한 내용은 그 마을의 역사와 인물, 자연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여야 한다. 이들 자료는 사실상 그 마을을 조사 대상지역으로 선정할 때부터 어느 정도는 이미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마

* 제주대 강사,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을의 어떤 성격에 주목해서 조사대상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조사지역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한 근거는 '마을배경'이나 '사회배경'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로 '조사경위'라는 항목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조사경위에서 제시한 조사지역 선정이유와 마을개황(또는 사회배경)에서 다룬 그 지역 나름의 특성이 긴밀한 관련을 지닌 것으로 다뤄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¹⁾ 이는 더 나아가 조사 대상으로 특정한 마을을 선택한 이유와 그 마을의 전반적인 특성, 그리고 조사대상 자료간에 아무런 연관이 없이 다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임을 드러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지역선정이 어떤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가도 아울러 검토해 보기로 한다.

II. 地域 選定 理由

조사지역 선정은 구비전승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러 지역을 조사하면서 어떤 기준에 따라 조사지역을 선정해 왔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에서 영인 간행한 바 있는 『濟州島部落誌』(I)~(IV)로 자료를 한정해서 대체적인 경향을 보기로 한다.²⁾ 물론 개중에는 지역선정에 따른 특별한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는 함께 검토하지 않기로 한다.

- 1) 지역적인 안배 : 김녕, 온평, 하례, 연평, 가파(연평과 비교), 중문(도서지역과 비교)
- 2) 역사 오랜 마을 : 김녕, 온평, 하례
- 3) 지역적 특이성 : 대평(중산간, 해안, 고립성), 하례, 연평(어촌, 섬), 창천(전형적 농촌), 가파(섬), 중문(개발대상 지역)
- 4) 풍부한 자료 : 창천

조사지역 선정에는 ①역사가 오래거나, ②풍부한 자료가 전승되고 있거나, ③급격한 사회변동에 직면해 자료의 인멸 가능성이 많다거나 하는 등의 뚜렷한 이유가

1) 이하 이 글에서는 '마을개황'으로 통일해서 사용한다.

2) 용수리와 오소리 조사결과는 제외한다. 이 글의 검토대상은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에서 해 온 학술조사성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있어야 할 것이다.³⁾ 그런데, 위에서 볼 때, 2), 3)은 조사지역 선정이유가 비교적 분명히 제시된 셈이나, 1), 4)와 같은 경우는 그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

지역적인 안배라는 기준은 때로 제주도라는 한정된 지역을 놓고 동·서부, 남·북부나 읍면 지역 단위 등으로 구분해 볼 때 지금까지의 조사가 어느 한쪽에 치우쳤거나, 지금까지의 조사가 중산간에 치우쳤다가나 특정 읍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을 선정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선정기준은 사실상 제주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도 그 이유가 불분명한 것만도 아니다.⁴⁾ 지금까지의 학술조사에서는 많은 경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역을 선정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풍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선정했다는 것은 조사를 해본 후에 그 이유를 마련한 것처럼 보인다. 물론 기존의 문헌기록이나 조사자료를 통해 특정 마을에 풍부한 자료가 전승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는 있다. 그러나, 창천리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문헌기록이나 기존 조사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조사를 해보기 전에는 자료가 풍부하지 빈약한지 알 길이 없다. 다만, 추측할 수 있을 뿐인데, 이러한 추측이 조사지 선정이유로 합당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른 지역 조사경험과 예비조사의 결과를 비교해 봄으로써 어느 정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나, 제주도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어느 마을이 자료가 풍부하고 또 어느 마을은 자료가 빈약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역사가 오랜 마을이라는 기준은 명월, 남읍 등에도 적용되나 이들 조사지 선정이유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이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니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일 수도 있으나, 자료를 활용할 사람이 제주도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역사가 오랜 마을은 또한 자료가 풍부하게 남아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역사가 오랜 마을이면서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구비문학조사방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1979. 참조

4) 그러나, 보다 분명한 이유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지역구분이 실제 행정구역상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의미가 한정되어서는 곤란하다. 기존 연구에서 제주도의 경우 언어, 문화, 관습 면에서 그러한 지역구분이 상당히 근거 있다고 밝혀졌거나, 현지조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역시 그러한 지역구분에 따른 변별성이 발견된다거나 해야 뚜렷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현지조사에서는 막연하게 이러한 변별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뿐, 구체적으로 그 변별성을 드러내려고 한 예가 없었던 것이 문제이다.

도회지와 떨어져 있어 개발의 힘이 미치지 않은 마을이라면 더욱 그 기대는 커지게 마련이다.

지역적 특이성을 고려한 경우에는 겉으로는 그 특이성이 분명히 제시된 듯 보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애매한 근거를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대평리의 경우에는 비교적 그 근거가 분명히 제시된 경우인데, 한편으로는 해안지역이면서도, 지형적으로 고립된 마을이라는 점이 잘 부각되었다. 또한, 중문의 경우에도 관광단지 개발계획으로 인해 급격한 변동을 맞이하게 된 점이 잘 지적되었다. 그러나, 대체로 섬, 해촌, 전형적인 농촌 등 그 특이성이 피상적인 데 그치고 있는 점이 문제이다.

조사가 매년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떠한 지역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쉽게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섬이라는 지리적인 상황과 관광산업이 중시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어떤 지역도 사회변동에서 예외인 곳이 없음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우선순위가 문제되는 것이지 그 선정이유 자체가 굳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뤄진 조사에서 지역선정의 기준도 우선순위의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조사지역 선정에 있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온당할 것인가. 이는 무엇보다도 자료인멸의 가능성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기준에 따르면, 대도시의 주변지역이 우선 조사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주시, 서귀포시 등 도회지의 주변마을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의 조사에서는 그렇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도회지 주변마을을 고려한 경우에도 광령이나, 보목, 하례 등 비교적 멀리 떨어진 지역을 선정함으로써 도회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에 대한 조사는 일찌감치 포기한 셈이 되어 버렸다. 이처럼 도회지에 대한 조사를 너무 일찍 포기함으로써 현재 이들 지역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하고 말았다. 제주시 지역만 하더라도 노형동, 해안동, 연동, 용담동, 오라동 등 나름대로 조사할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의 자료가 거의 인멸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 연관해서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조사에서는 조사하기 쉬운 지역을 편의대로 선정해온 감이 없지 않다. 즉 자료가 풍부해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자료수집이 가능한 지역에 집중되어 온 경향이 있다. 또한 조사시의 숙식문제, 교통편 등을 고려해서 조사지 선택의 우선순위를 삼아온 경향이 짙다. 조사가 거의 매년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조사할 지역을 미리 선정해서 장

기적인 안목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조사분야 선정 문제도 함께 거론해 보기로 한다. 조사분야 선정에 있어서 기본유형은 방언, 민요, 설화, 신앙을 조사분야로 한 경우이다. 이 기본유형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세시풍속(명월, 광평), 지명(남읍, 락지, 가과, 성읍), 유적, 유물·유적(락지, 덕수, 중문, 성읍), 해녀(연평, 가과, 중문), 가족(연평), 금기담(창천)

주로 기본유형에서 지역에 따라 한 두 가지 분야를 추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따로 독립해서 조사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명은 방언에서 다룰 수 있고, 유적, 유물 등은 마을개황에서 함께 다룰 수 있다.⁵⁾ 금기담 또한 방언에서 함께 다룰 수 있을 것이다(구비문학에서는 문학으로 다루는 경향이긴 하지만).⁶⁾ 나머지 세시풍속, 가족, 해녀 등은 민속으로 포괄되어야 할 것이지만, 민간신앙 외에는 민속에 대한 조사를 따로 벌이지 않아 왔기 때문에 처리가 곤란한 실정이다.⁷⁾ 지속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독립된 조사분야로 계속 설정해야 될 것이

-
- 5) 유적·유물은 국어교육이나 국어국문학이라는 전공분야와 거리가 멀다. 따로 공부를 하지 않고 고서는 다루기 어려운 분야이므로, 이들을 함께 조사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 마을의 특성을 드러내는 데 필요하다면, ‘마을개황’에서 간단히 언급해 두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독립된 조사항목으로 다루게 되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지명은 최근 들어서는 ‘방언’에서 함께 다룬 경우가 많으니, 이처럼 독립해서 다루는 것이 부적합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 6) 그러나, 지금까지 한 지역에서만 독립항목으로 금기담이 조사되었다. 다른 지역에서 자료가 없어서 조사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창천리에서의 조사가 굳이 필요한 조사였던가 의심스럽다. 이는 ‘가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7) 현 시점에서 정비가 필요하다. 그 동안 신앙을 독립된 조사항목으로 다뤘던 것은 무속신앙이 성한 제주도의 특수성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국문학을 하면서 무속을 다루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였다). 민속학과나 종교학과는 따로 생겨서 이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를 맡는다면 우리가 굳이 이쪽까지 다룰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대신 무기를 집 중적으로 조사·연구하면 그만일 것이다. 신앙을 조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다만 현시점에서 어떻게든 조사를 해둘 필요가 있어서 우선 함께 조사하는 것일 뿐이라 해야 옳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민속의 일분야인 신앙을 함께 조사했다 해서 다른 것을 더 추가해도 무리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가족’의 경우는 주 6)에서 언급한 대로이다. 한 때 마을개황에서 다뤄진 적도 있었으니 그 혼란상을 알 수 있다. 계속된 다른 마을의 조사에서 이들 항목을 따로 다루지 않았던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다. 그렇지 않다면 마을개황에서 함께 다루거나 아예 다루지 않는 것이 합당한 선택이다.

또한 연평, 중문, 가파는 비교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인데 조사분야가 일치하지 않아 적절한 비교가 어렵다. 이로 보아서도 조사지 선정 이유가 심각한 검토와 더불어 제시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즉흥적으로 제시되어 온 면이 많음을 알 수 있다.

Ⅲ. 조사 항목 검토

마을개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정된 조사항목은 인문, 자연환경으로 대별되고 있으며, 인구현황, 역사, 기타 생활실태에 대한 조사 등이 중점적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항목이 매 조사 때마다 일관되게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는 서로 다른 마을의 실태를 비교해 보는 데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역사적인 변천과정을 파악하는 데도 문제가 따른다. 그러나, 항목설정의 일관성이 없으면서 그 마을만의 독특한 사정을 전해주는 항목이 따로 설정되지도 않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

자연환경, 사적배경, 인문개황, 산업구조(중문, 성읍)
지리적 환경, 역사적 배경, 인문개황, 산업구조(귀덕, 동북)
자연환경, 역사적 배경, 인문개황, 산업구조(고산)

위의 것이 제1유형이라 할만한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는 용수, 행원, 오조, 가파, 남읍, 광지, 명월, 김녕, 대평, 온평, 하례 등을 더 들 수 있다. 이것이 기존 조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항목 설정이며, 대체적인 틀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비록 조사항목은 일치하고 있으나, 매 조사시마다 항목명이 달리 설정되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그렇게 할만한 뚜렷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한번 바뀐 항목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리적 환경이라고 하면서 그 마을의 자연환경 일반에 대해 기술하는 경우가 많으니, 굳이 지리적 환경이라는 좁은 개념의 용어를 쓸 필요는 없으며 자연환경으로 통일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인문개황에 역사적 배경을 포괄해도 좋을 것이며, 용어의 통일을 기하는 의미에서 인문환경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산업구조는 그 구조적인 측면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산업환경으로 바꾸어 기술하는 게 낫겠다.

지리적 환경, 역사적 배경, 인문개황(광령)
자연환경, 인문개황, 산업구조(덕수)

이를 제2유형이라 해 둔다. 제2유형은 제1유형에서 역사적 배경, 또는 산업구조가 제외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항목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제외된 데 있다. 이들 지역이 역사적 배경이나 산업구조에 대해 따로 거론할만한 가치가 없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데도 이러한 결과가 생기고 있다. 최근에는 행정동으로 독립되지 못하고 법정동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을 조사할 때, 간단한 인구현황을 조사하더라도 독립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조사의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있어 이처럼 기존 조사항목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도 나타나고 있지만, 과거의 조사에서 이처럼 일관성이 없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연환경, 사적배경, 인문개황, 산업구조, 가옥구조(연평)
지리적 환경, 역사적 배경, 인문개황, 가족·친족(창천)

이를 제3유형이라고 해 둔다. 제3유형의 특징은 제1유형의 항목을 다 갖추거나 어느 하나를 빼는 대신 가옥구조나 가족, 친족 등 민속분야를 추가하는 경우이다. 이는 따지고 보면 전체적인 조사분야와도 일정한 관련이 있다. 마을개황 조사에서 가족, 친족을 다루지 않더라도 방언, 민요, 설화 등과 더불어 이들을 따로 독립해서 조사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개별 조사분야로 따로 독립해서 다루든, 마을개황에 묶어 다루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은 분명한데, 조사할 때마다 편의대로 바뀌어온 데 문제가 있다.

IV. 조사 내용 검토

1. 자연환경

자연환경에서는 지리적인 위치가 밝혀져야 한다. 거의 모든 조사에서 경도와 위

도를 따로 밝혀주고 있다. 그러나, 요즈음 지도가 일반화되어 있어서 자연부락의 위치를 이처럼 경도, 위도로 밝힐 필요까지는 없어졌다. 그보다는 바다, 한라산, 일주도로와의 거리가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그 마을의 생활권과 관련이 있으므로, 그 생활권의 변화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도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어야겠다. 평지가 많은지, 오름이나 구릉이 많은지를 알 수 있어야겠다. 또 평지의 경우에는 어떤 토양이 주를 이루며 무슨 농사에 적합한지가 밝혀져야겠고, 산지의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어느 정도이며 수림상태는 어떠한지도 밝혀져야겠다. 이는 산업구조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자료이므로 도외시할 수 없는 것들이다.

자연환경은 그 마을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 생활환경은 또한 방언, 민요, 설화, 신앙 등의 자료와 무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연환경에 따라 그 마을에서 조사할 자료의 성격을 가늠해 볼 수 있으며,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할 자료가 어떤 것인가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조사지역에 따라서는 그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얻기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자연환경에 따른 자료는 대부분 행정관서에서 기존에 조사해 둔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때에 따라서는 독립된 조사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지조사를 하면서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따로 하는 것도 무리이다. 이는 우리의 역량 밖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대로 기존 조사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독립된 자료가 없을 경우 주변지역 자료를 참고로 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역사적 배경

대부분의 마을은 그 마을의 역사와 관련된 문헌기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예사이다. 이때 문헌에 등장하는 주변지역에 대한 기록을 참고로 추측을 해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비록 문헌기록만큼 정확한 것은 아닐지라도 마을마다 설촌유래가 구전되어 오고 있다. 설촌유래는 설촌과 관련된 전설로, 때로는 그 지역의 자연물에 대한 전설로, 달리는 당분풀이로도 전해진다. 이들 구전자료를 통해 그 마을의 대체적인 역사를 추적해 볼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⁸⁾

8) 다만,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설촌유래에 대한 조사자료를 보고서의 어느 항목에서 다뤄

마을의 주요 지명을 통해 그 역사를 추적해 볼 수도 있다. 많은 경우 지명은 그 마을의 설촌유래와 관련되며, 역사적인 변천과정과도 관련된다.⁹⁾ 유물·유적이 남아 있다면, 마을의 역사를 추적하는 데 더 없이 도움이 될 것이므로, 사학가들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가능한 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어려우면 기존 조사자료를 적극적으로 참고해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오랜 유물·유적이 남아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르면 조선시대, 늦으면 일제시대부터는 그 마을의 변천사를 어느 정도 알려주는 기록들을 만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주요연혁을 작성해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작성된 주요연혁은 村老들의 口傳과 함께 기본적인 역사자료로 검토될 수 있다.

또 다른 방안은 주요 성씨의 족보에 대한 검토이다. 그 마을에 이른 시기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집안에 대해 마을 내에서 대체적으로 합의된 이야기가 전해지게 보통이다. 그러므로, 그 집안의 족보를 통해 기록에 남아 있는 마을의 유래를 찾아 볼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조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3. 인문환경

우선 밝혀져야 할 것이 가구 및 인구 현황이다. 가구조사의 경우 성씨별, 생업(직업)별 분포가 함께 조사되어야 한다. 인구조사의 경우 연령별 분포, 성별 분포가 함께 조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조사시점의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과거의 자료가 함께 파악되어서, 그간의 변동상황을 엿볼 수 있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간의 조사에서는 이 점에 소홀했다고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생활환경에 대한 조사이다. 기본적인 생활이 어떤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가 즉, 생활권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요즘과 같이 교통이 발달하지

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적절한 대안은 '마을개황'에서는 대체적인 줄거리를 표준어로 정리해 놓고, 구체적인 조사자료는 '설화'에 함께 실어 놓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설화자료만 따로 보고자 할 때 굳이 '마을개황'까지 뒤져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일 것이다.

9) '지명'은 '방언'항목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좋다. 다만, '마을개황'에서는 마을의 역사와 관련 지을 수 있는 지명만 따로 다루되, 여기서 다른 지명도 '방언'에서 다시 다루는 게 좋겠다.

못한 옛날에는 기본생활권이 매우 좁았다. 면단위 이하의 마을을 기준으로 할 때, 기본생활권은 대체로 면소재지 정도로 한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편지·전화·전보에 관한 일이나, 관공서에 가거나, 기본적인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하는 일상적인 일이 대체로 여기서 해결된다. 그러나, 이보다 좀더 큰 생활권은 시장과 관련된다. 대체로 오일시장이 있는 지역으로 생활권이 연결된다. 그 다음으로는 생활권을 확장하면, 상설시장이 있는 읍소재지 또는 市 지역이 된다. 교통이 발달되면서 오늘날에는 그 생활권이 크게 바뀌었다. 그러므로, 현지조사에서는 기존의 기본생활권이 거의 무의미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대개의 경우 생활권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기존의 생활권이 어떠했으며, 어떠한 변화과정을 겪었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생활권은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만은 아니다. 이는 곧 정보와 문화를 받아들이는 통로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마을의 생활권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는 곧 그 마을의 전반적인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 동안의 조사에서 생활권에 대한 조사가 소홀했던 점은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생활권과 관련해서, 인근 도회지와와의 거리, 교통편에 따른 소요시간 등도 조사해야 될 것들이다. 이들은 해당 마을의 기본생활권이 어떤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기존조사에서 중점을 두었던 것이 바로 문화시설, 교육시설 등에 대한 조사이다. 그러나, 자연부락 단위의 작은 마을에 문화시설이 따로 있을 수 없으니 다만 전화니, 텔레비전이니, 자동차니 하는 것들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를 조사했을 뿐이다. 제주도의 경우 이들 文明利器 보유는 거의 보편화되어 있어서 특정 마을 자료가 굳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 따로 조사할 필요성이 사라졌다 하겠다. 교육시설에 대한 조사는 교육기관(학교, 유치원)과 학생 수에 대한 것이 전부였다. 사실상 자연부락 단위 조사에서 교육시설에 대한 조사가 이 이상 진행될 수는 없다. 또한 그럴 필요도 없을 지 모른다. 취학 학생 수, 주민의 학력 등을 따로 조사할 수 있으면 오히려 더 바람직한 자료가 될 것이다.

4. 산업환경

조사 마을의 성격을 분명히 결정짓는 것은 무엇보다도 산업환경이라 할 수 있다. 주민들이 주로 어떤 산업에 종사하는가, 주소득원이 무엇인가는 바로 그들의 생활 형태와 수준을 결정할 뿐 아니라, 사고방식까지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간 중요한 게 아니다.

제주도의 경우 대부분 마을의 위치에 따라 마을의 형태를 중산간, 일주도로, 해안지역으로 3분하는데, 중산간의 경우 농업·목축, 일주도로변은 농업, 해안지역은 농업·어업에 종사하는 게 보통이다. 이들 주생업에 따라 조사자료의 성격도 달라질 것은 뻔한 일이다.

구체적으로 경지이용 실태, 가축사육 현황, 어업소득 현황 등을 조사함으로써 자세한 생업현황을 엿볼 수 있게 된다. 이들 자료 또한 마을이 위치한 지리적 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들로서 가능한 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생업이나 생업현황이 항상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급속한 발전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마을마다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으니, 산업부분도 예외가 아니다. 그 변동양상까지 아울러 조사해야 하겠다.

V. 맺음말

기존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중 앞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들만 우선 정리하기로 한다. 이미 앞에서 언급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치면서 개선방향을 설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1) 조사지역 선정기준을 마련해야겠다. 편의대로 아무 마을이나 선정해서 조사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시급히 조사하지 않으면 자료가 인멸될 위기에 처한 곳을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또한 역사가 오랜 마을에 대한 조사에 우선권을 두어야 하겠다.

2) 조사항목을 확정지어야겠다. 조사자의 편의에 따라 조사항목을 수시로 바꾸는 것은 피해야 한다. 다른 마을과 비교해 보는 데 장애가 될 뿐이다. 조사내용도 마찬가지로. 어느 마을에서는 성씨별 인구분포를 조사하고 어떤 마을에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껏 조사한 것도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3) 조사내용 중 인구변동 추이, 생활권의 변화, 생업환경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야겠다. 조사당시의 자료만 제시해서는 그 마을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 몇 년간의 변동추이나, 아니면 10년 단위의 변동양상을 함께 제시할 수 있으면 그 마을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4) 지역선정 이유, 마을개황, 조사자료가 유기적인 관련성을 지니도록 해야겠다. 마을을 선정한 이유는 역사가 오래기 때문이라 해놓고, 마을개황에서는 그 역사가 오래를 드러내지 못하고, 또한 방언, 설화 등 조사자료에서 역사 오랜 마을의 면모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한마디로 실패한 조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5) 다른 마을에서와 같이 공통적으로 조사해야 될 것과 특히 그 마을에서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결정하고 난 후에 실제 현지조사에 임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조사 마을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면모와 특수한 면모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은 대체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 믿는다. 그러나, 실제 조사지에 서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으므로 조사경험자들의 논의과정을 통해 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간 조사하는 데 급급해서 뒤돌아 볼 여유가 없었던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 글은 크게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나 한다.